

- 인천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 회 의 록

회 의 명	제2차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일 시	2024. 2. 27.(화) 10:00		
장 소	제1청 서별관 2층 회의실		
참석현황	참석대상	참석인원	불참인원
	10명	8명	2명
안건명	1.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의 건 2. 의정활동비 결정의 건		

(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박여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진동으로 전환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3년간의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재적위원 10분 중 총 8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E)

안녕하세요 위원장 E 입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번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의 건’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은 지난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공청회 개최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개최된 공청회는 참석 주민은 40여 명으로, 찬성측 발표자, 반대측 발표자 한 분씩 모시고 공청회 진행했습니다.

공청회에 나왔던 발표자 의견과 방청객 의견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발표하셨던 찬성측은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의정활동비의 인상이 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더불어 의정활동 보장으로 인한 젊은 인재 유입의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하셨던 반대측은 구의원이 겸직이 가능한 점,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세수가 부족하여 지자체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으며 정책지원관을 더 활용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2 페이지입니다.

방청객 발표는 총 3분이 하셨으며, 전부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요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의정활동비를 인상해 주고 의원님들의 활동범위를 더 늘려줘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 주민 대상으로 제1차 회의에서 정한 기준인 월 150만원, 연 1800만원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받았으며 집계 결과 제출하신 총 34건 중 찬성 32건 반대 2건으로 집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주요 의견으로는 활동비 인상은 의원의 활동 영역 확장에 따라 해줘야 하나, 겸직이 가능한 의원이 의원직을 본업인 것을 인지하여 구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공청회 개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E)

공청회 관련하여 논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 위원)

공청회는 잘 듣고 열심히들 하셨는데 그날 저도 참석해서 보니까 저희 안전대로 가고 행정안전부에서 어차피 내려왔던 지침이고 계속 다들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공청회는 오신 분들 말씀도 그렇고 들어보면 거의 그냥 찬성으로 많이 가고 반대 의견을 제출하신 분에 대한 의견들이 서면 접수도 2건밖에 안 됐고 말씀하신 분도 없더라고요. 주민 의견대로 가야 하는구나 생각했고요. 이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H 위원)

이건 찬성이 압도적이고요. 반대의 근거를 보면 조금 이게 약간 반대 근거가 좀 미약해요.

왜냐하면 겸직 가능하다는 게 사실은 자기가 사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금액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이용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보좌관, 정책지원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책지원관이라는 건 시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다 있는 건데 이게 또 인상을 저해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인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상을 해도 좀 적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E)

다른 분들은요?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은 의정활동비 결정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의의결안은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에서 찬성이 과반 이상인 것을 반영하여, 제1차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 상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의 상한액인 월 150만원 / 연 1,800만원을 최종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은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120만원,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그냥 끄덕끄덕하시고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G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결돼서 거기서 공청회까지 다 됐고 지금 말씀하신 H 의원님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무슨 거기에 이거 이만큼 주는 데 대해서 특별히 다른 반대 의견도 없고 거의 찬성 쪽으로 해야하지 않나. 이거 20년 동안 못 했던 건데 우리가 이번에 못

해주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찬성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E)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있네요.

(B 위원)

26년까지예요? 저는 그동안 그때 회의 때도 20년 동안 동결했다고 해서 사실 좀 충격받았거든요. 그럼 예전부터 이 회의를 안 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올리지도 않고 구정 활동하시는 분이 꼴 보기 싫었는지 왜 이렇게 활동비를 이렇게 동결을 20년 동안 했는지도 조금 의아했어요.

저희가 올린 것도 많이 올렸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적정하게 저희가 잘 쓰임새 있게 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E)

뉴스 보니까 통상적으로 전국에 다 150에서 200정도 올렸더라고요. 우리는 이정도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G 위원)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도 이걸 했었거든요. 월정수당을 1.5%인가 그거 올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원래 구의원들 시의원들 시작할 때는 무보수로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20년 동안 못 올려주고 또 코로나가 있어 더 그랬다가 상향론이 나왔었는데 이게 반대쪽이 된거는, 계속. 당끼리의 싸우고 밀어내면서 이거는 아니다는 얘기도 나왔었구요. 국회의원들은 처음부터 의정비 받고 가져가지만, 구의원하고 시의원은 자체가 무보수로 처음부터 들어왔지 않습니까? 처음엔 무보수로 들어왔다가 의정활동비, 보수를 만들다보니 회의 때마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작년에 그래도 월정수당은 공무원 월급 올라가는 거만큼 올려야 되지 않냐. 공무원 수준에 맞아야 한다고 또 반대는 지방자치에서 예산이 안 되면 또 못 올린다 했지만 그래도 공무원 인상률만큼 올려드렸었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B 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끝났잖아요. 코로나 전에도 물론 활동한 걸 많이 봤거든요. 저같이 지역 활동 많이 한 사람들은 아마 옆에서 봤을 거예요. 국회의원들보다도 더 많이 바빠 무슨 활동을 하시더라구요. 열심히 인사 다니시고 행사 다니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대단하다 했는데 지금 말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E)

그럼 여기서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분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 상한액이 월 150만 원, 연 1800만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 공무원께서는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